

# 연등 물결 일렁이니 온 세상 자비의 물결

### 5월 17일 부처님오신날 맞아 대구·부산 봉축 행사 풍성

봉축을 앞두고 각 지역에서는 다양한 봉축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부산불교연합회의 점등식 행사에서부터 대구 달구벌 관등놀이까지 경상도와 충청도 지역 봉축 행사들을 모아봤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수불스님)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봉축상징대보탑등 점등식 행사를 개최하고 2013부산연등축제의 본격 개막을 알렸다. 4월 27일 부산역 광장



홍법사 동자승 석발식



대구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

### 부산불교연등축제 개막식 대구불교총연합회 달구벌 관등놀이 홍법사-동자승 단기출가

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사부대중 3000여명이 동참 부처님 오신 날을 기렸다. 부산불교연합회장 수불 스님은 점등사에서 '2013 부산연등축제는 글로벌 문화축제, 시민들이 즐거이 참가하는 축제, 젊은이들이 함께하는 역동적인 축제로 만들어 나가자'고 전했다.

올해로 2번째를 맞은 대구불교총연합회의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는 4월 27일 국제보상공원에서 관등탑 점등식을 시작으로 화려한 막을 올렸다. '희망의 달구벌 삼층관등탑'은 전통한지와 등으로 제작된 12m 높이로 약사여래의 지혜가 온누리

에 가득하라는 염원을 담았다. 대구불교총연합회 회장 성문 스님(동화사 주지)은 봉행사를 통해 "마음에 자비로 구원의 등불을 밝히고 못생것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전했다.

'2013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는 5월 9일부터 11일까지 두류공원 야구장에 전통 한지등 전시와 문화체험마당, 축하공연 등도 함께 펼쳐며 관등행렬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부산 홍법사는 4월 27일 부산 홍법사에서 3일간의 행자생활을 마친 어린이들이 동자승 석발수계식 행사를 진행했다. 홍법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다양한 행사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부산불교연합회의 점등식 행사

사 주지 심산 스님은 "출가자의 탄생은 무한한 공덕이 있다. 비록 21일간의 단기출가이지만 이것도 거룩한 발심이고 소중한 경험과 공덕이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올해로 8번째 진행되는 홍법사 '부처님과 함께하는 21일간의 동자승 단기출가'에는 총 13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했다. 석발식을 거친 동자승들은 부처님오신날인 5월17일까지 총 21일간의 출가체험을 하고 회향한계식을 끝으로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간다.

법어사 또한 부산역 점등행사에 이어 부산 광복로에서 한반도평화기원 봉축상징

탑 점등식을 개최하고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밖에 충청북도불교총연합회(회장 범주사 주지 현조스님)는 4월 27일에는 정주대교 분수대공원에서 '2013 오송 화장품·뷰티 박람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봉축탑 점등식'을 가졌다. 또한 당진시불교사암연합회(회장 정안스님)는 4월28일 당진 문예의전당에서 '제9회 당진시 국운음향 시민발전 연등회'를 개최하며 대전시청불자회(회장 이원중)도 4월29일 시청 남문 앞에서 봉축탑 점등식을 가졌다.

순문철 대구지사장·박경수 부산지사장

## 통도사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대법회

### 6월 25일부터 100일 기도 입재

남북관계의 최후의 보루로 불리던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한반도 정세가 경색되는 시기에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원산)가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대법회를 양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정전 60주년을 맞아 조계종이 주최하고 영축총림 통도사가 주관한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기원 대법회'는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시민불자 3,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호국선열과 평화를 위한 기도를 시작으로 평화영상, 대북취타, 삼귀의, 반야심경, 봉행사, 대회사, 기원문, 통일발원문, 평화의 노래 순으로 진행됐다.

한반도평화대회 공운운영위원장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북한은 개혁과 개



통도사서 개최된 남북통일 대법회

방, 소통의 장으로 나와야 하고, 우리 정부는 다양한 대북정책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조국을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도사는 9월 대대적인 행사로 개최되는 한반도 평화대회의 원만성취와 시민과 불자들의 평화 염원을 결집하기 위해 6월25일부터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100일 기도에 들어간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 부산여성개발원 지인장 취임식

불교여성개발원부산지원(원장 김귀경)은 4월 26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4대 지인장 취임식과 부산불교의 활력을 불어 넣을 청년 불자들의 모임인 'young 108인회' 창립발대식을 개최했다.

4대 회장을 연임하게 된 김귀경 회장은 "오늘 영108인회 발대식은 부산불교의 젊고 튼튼한 뿌리와 열매가 되길 기원하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 마곡사-숲과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도입

마곡사와 시민모임인 '숲과 에너지'가 4월 28일 사찰 중심 산촌 마을형 신재생에너지 도입과 자립과 모델 개발에 나선다. 마곡사와 숲과 에너지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사찰에너지 비용절감 사업과 생태적 순환에너지 시스템 구축, 공익적 에너지 절감활동을 통한 사찰의 지역 사회 위상 강화 사업 등을 펼치기로 약속했다. 양측이 맺은 업무협약은 지난해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가 주최한 '불교계 시민사회단체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정혜승 기자

## 캠페인

###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 현수막과 전각 현판 제자리에 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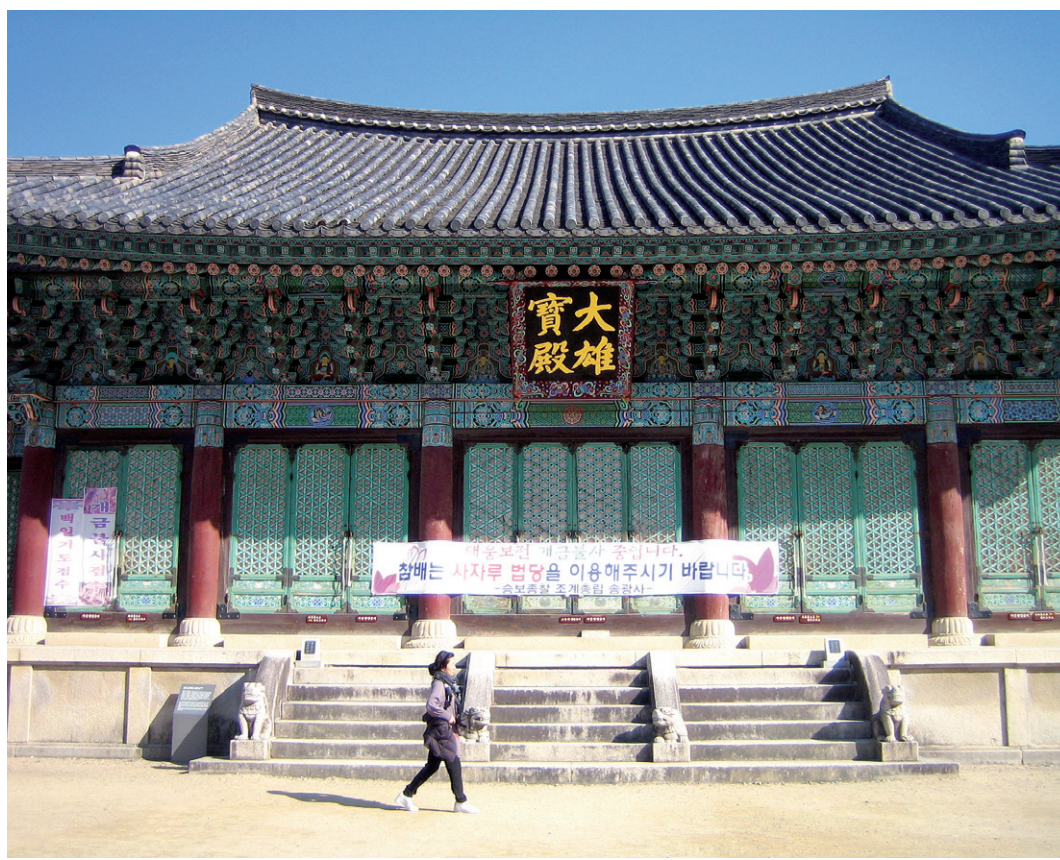
5월 17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전국 사찰에 텀플스테이, 산사음악회 등 각종 행사를 알리기 위한 홍보용 현수막이 넘쳐난다. 해당 절의 홍보와 신도 유치를 위해서는 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이해하고 넘어가려 해도 그 도가 지나친 것이 있다. 바로 대웅전 앞을 가리며 대웅보전 문살에 걸려 있는 현수막이다. 다른 곳도 아닌 사찰의 가장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부처님을 모신 대웅보전 앞에 현수막을 내건다는 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경관을 해치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보존불을 주로 모셔 사찰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참배하는 법당인 대웅전 앞에 저렇게 버젓이 걸어놓은 현수막은 눈에 거슬린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 또 있다. 사찰 가람의 아름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람과 어울리지 않는 현판을 불박이용으로 걸어놓고 있는 것이다.

한눈에 봐도 천연덕스럽게 휘어지고 뒤틀린 목재를 사용해서 뻗은 기둥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지만 종무소 팻말과 점수 현수막이 걸려있어 그 아름다움을 막고 있다.

마음의 위안을 찾기 위해 또는 문화재를 감상하기 위해 오는 불자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적어도 소박하고 고즈넉한 사찰 본래의 맛을 느끼게 해주려면 현수막과 현판만큼은 제자리를 찾아 걸어 두어야 할 것이다.

독자 김성태(KBS)



부처님오신날 봉축 현수막이 대웅전 앞을 가린 사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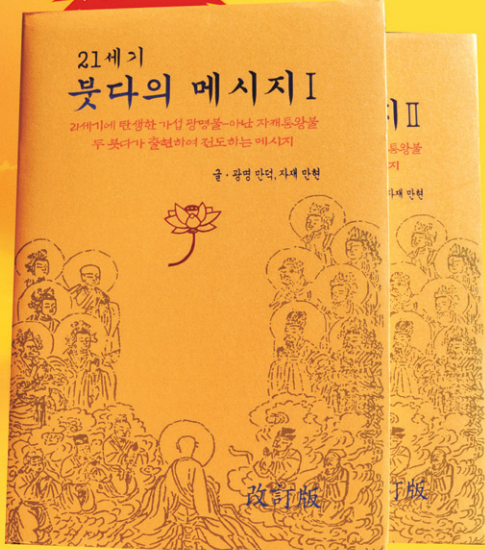
충청남도의 사찰의 1995년 촬영한 모습(위)과 최근 현판을 불박이로 걸어놓은 모습(아래). 가람의 아름다움이 가려져 있다.

#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II

- 광명 만덕·자재 만현 -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23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16주 베스트셀러 1위

개정판



이 책을 수행인의 양심으로  
역사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부처님이 무아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시고 불신으로  
한국 땅에 오셨음을 증언한다”

삼매에서 진경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와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춘천본사 T.033)243-1795, 243-1787 불서출판 운주사 T.02)3672-7181 ※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 누구나 읽어야 할 영산불교 현지사의 양서

### 영혼체 윤회론

[158쪽 10,000원]

2천년간의 무아와 윤회주체의 모순을 해결하다

### 관음태교

[227쪽 10,000원]

영혼체 태교법인 관음태교의 이론과 실제

추천 도서

### 영산불교 새천수경

[131쪽 7,000원]

천수경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관음신앙을 바로 정립한 역작

### 부처님께서 주관하시는 천도재

[33쪽 무료배포]

현지사 천도재 안내